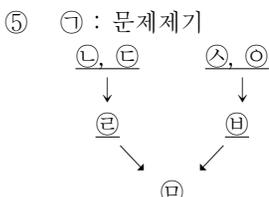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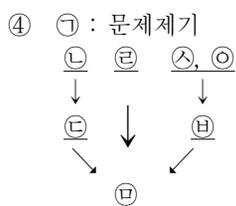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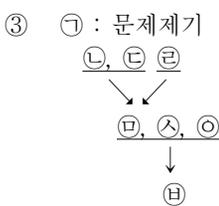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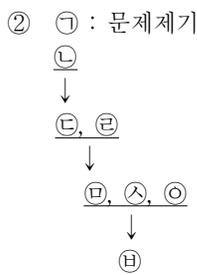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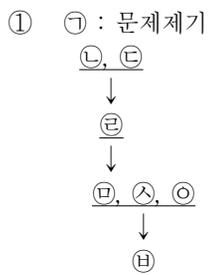


언어논리영역

문 1. 다음 글에 담긴 논증구조를 분석하여 도식화할 경우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는 밑줄 위의 문장들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문장을 논리적으로 지지함을 의미한다)

- ㉠ 현대의 과학이론은 대부분 관찰 불가능한 세계를 서술 대상으로 하기에, 과학이론이 참이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기란 쉽지 않다. 과학적 실재론은 과학이론은 참이며 이론 안에 표현된 관찰 불가능한 존재물들(소위 이론적 존재물들) 역시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철학의 한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입장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 ㉡ 코난 도일(Conan Doyle)의 이야기에서 셜록 홈스(Sherlock Holmes)가 제시한 설명은 항상 왓슨(J. B. Watson) 또는 통상적으로 어떤 난처한 사실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찰이 처음에 제시한 설명보다 항상 완벽하고 포괄적이다.
- ㉢ 홈스의 설명이 갖는 완전성은 다른 설명에는 결여되어 있는 증명력을 그에게 부여한다. 즉 범인이 잡히기도 전에 다른 어떤 설명들보다도 홈스의 설명이 옳다는 믿음을 갖도록 한다.
- ㉣ 과학의 많은 경우들에서도 이와 매우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 다만 소설과는 달리 관찰 불가능한 존재물을 가정하고 있기에, 과학이론의 높은 설명력은 이론의 옳음을 증명할 수는 없고 대신 그것이 옳다고 믿을 좋은 이유를 제공해 주고 있다.
- ㉤ 이처럼 만일 하나의 이론이나 주장이 어떤 데이터를 다른 이론이나 주장이 그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잘 설명한다면, 그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그 이론을 참이라고 믿을 만한 좋은 이유를 가질 수 있다.
- ㉥ 과학적 실재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우리는 과학적 실재론 역시 옳다고 믿을 좋은 이유를 가질 수 있다.
- ㉦ 실제로 과학사를 보면 과학은 많은 경우 매우 성공적임을 알 수 있다.
- ㉧ 그런데 과학적 실재론적 입장이 아닌 다른 입장들은 이러한 과학에서의 성공 현상을 충분히 잘 설명하지 못한다. 만약 어떤 과학이론이 세계에 관한 참된 혹은 적어도 근사적인 서술이라면, 그 과학 이론은 당연히 성공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문 2. 다음 글에서 밑줄 친 ‘한글의 역할’로 문맥상 적절한 것은?

사대부들이 훈민정음의 사용을 반대했던 내면적인 이유는, 문자 체계에 대한 그들의 독점 체제를 유지하려는 데에 있었다. 사대부들은 문자 체계의 독점으로 인한 상대적인 이득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문자는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말과는 달리 원거리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기록으로 남겨 권리의 증거로 삼을 수 있으며, 대대로 지식을 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자를 모르던 일반 백성들은 행정절차나 법률, 경제활동 등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 후기에, 신분 체계에 유동성이 생기고 상업이나 공업 등 근대적 산업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것과 - 비록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보급되기는 했으나 - 한글의 보급 현상과는 무관하지 않다.

현대를 일컬어 흔히 ‘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정보화 시대란 지식이 곧 권력을 낳는 시대라는 말과 같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도 한글이 공헌한 바가 크다. 한글은 우리나라의 문맹률을 낮추었고, 결과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권력을 형성하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공유시켜 민주주의에 이바지하기 위한 문자의 보급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오늘날, 인터넷을 중심으로 개별적이면서도 대량의 정보가 유통되는 컴퓨터 통신은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과 달리 쌍방향 의사소통 체계로 보다 진보적인 민주주의적 의사소통 수단이다. 컴퓨터 통신 시대에는 한글의 역할도 그만큼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① 문맹률을 낮추는 역할
- ② 근대 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역할
- ③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
- ④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
- ⑤ 개별적이면서도 대량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역할

문 3. 다음은 타인을 평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편견과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관련된 것끼리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 이번에 승진한 김과장은 너무 일하기 편한 부서에서만 근무해서 승진된 것이다.
- ㉡ 그는 매우 부지런하기 때문에 책임감도 강하고, 능력도 있고, 판단력과 결단력이 뛰어날 것이다.
- ㉢ 박씨의 사고방식은 나의 사고방식과 비슷해서 내가 일하는 인사과에서도 일을 잘할 것이다.
- ㉣ 슈미트는 독일인이기 때문에 근면한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김씨는 경리과에 근무하기 때문에 융통성은 없지만 꼼꼼할 것이다.

- a 평가과정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상을 보고 평가 대상자의 전반적인 평가요소를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 b 타인에 대한 평가가 그가 속한 특정 집단이나 소속에 대한 시각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향
- c 다른 사람이 행한 행동의 원인을 개인의 지각에 의존하는 경향
- d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자신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연결시키는 경향

- ① ㉠-a, ㉡-c, ㉢-b, ㉣-d
- ② ㉠-a, ㉡-c, ㉢-d, ㉣-b
- ③ ㉠-c, ㉡-a, ㉢-d, ㉣-b
- ④ ㉠-c, ㉡-b, ㉢-a, ㉣-d
- ⑤ ㉠-d, ㉡-a, ㉢-b, ㉣-c

문 1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든 문화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물질적·기술적 측면에서 뒤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화일지라도, 예컨대 자연 환경이나 다른 생물에 대한 존중과 같은 측면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인류학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놀랄 만큼 다양한 생활 양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때문에 모든 문화권의 행동 양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배우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일종의 판단 정지를 하게 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 상대주의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다른 문화권 내에 존재하는 명백한 폭력적 행동 양식마저 그들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컨대 우리가 비폭력적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폭력적 문화를 가진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 경우 그것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해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가? 따라서 큰 틀에서는 문화 상대주의를 따르더라도, 모든 인간을 상대로 일반화할 수 없는 가치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 전체를 존중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비인간적이며, 보편화될 수 없는 모든 행위 또한 비인간적이다.

- ① 문화 상대주의로 폭력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
- ② 비인간적 행위를 문화적 맥락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 ③ 타인 역시 존중받을 인간이라는 사실은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과는 상치된다.
- ④ 문화적인 특수성은 인간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충돌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 ⑤ 인간의 존엄성을 상대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가치들은 문화 상대주의를 따르더라도 용인되기 어렵다.

문 15. 다음 각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주제는?

가. 2001년 1월 20일, 필리핀 대통령 조셉 에스트라다는 영리한 군중에게 권력을 잃은 역사상 최초의 국가 수반이 되었다. 100만 명 이상의 마닐라 거주민들이 문자 메시지의 파도에 휩쓸려 동원되고 통합되어, 1986년 마크코스를 권좌에서 몰아낸 평화적인 ‘피플 파워’ 시위가 발생했던 현장에 다시 모였다. “에드사로 갈 것, 흑의(黑衣) 착용”. 에스트라다는 실각했고 ‘문자 세대’라는 전설이 탄생했다.

나. 1999년 11월 30일, 세계무역기구(WTO)회의에 항의하는 자발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위집단들이 ‘시애틀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휴대전화, 웹사이트, 랩탑 컴퓨터, PDA 등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다. 2000년 9월, 수천 명의 영국 국민이 휘발유 가격의 갑작스러운 인상에 격분하여 기습 불법 정치집회를 열었고, 특정 정유소들로 흩어져 연료 배달을 차단하는 집단들을 조직하기 위해 휴대전화, SMS, 노트북의 전자우편, 그리고 택시의 CB 무선통신을 이용하였다.

라. 1992년 이래 매달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시위하는 수천 명의 ‘비판적 대중’이라는 시위대가 집단을 이루어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누볐다. 비판적 대중은 느슨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한다. 그들은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상황을 전달받으며, 필요한 때에는 먼 거리에서 조정되는 작은 집단들로 쪼개진다.

- ① 뉴미디어의 보편화와 시위의 전세계화
- ② 모바일 미디어의 급속한 확산 가능성
- ③ 뉴미디어 기술의 혁신적 발달과 세계화
- ④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뉴미디어의 잠재력
- ⑤ 군중 동원을 위한 모바일 미디어의 악용 가능성

문 16. 경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판단의 기초를 바르게 묶은 것은?

경미는 정원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친구인 진우, 상호, 민주가 그 일을 매우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일은 분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세 명 모두에게 줄 수는 없다. 경미는 그들 중 누구에게라도 같은 일을 시키고 같은 임금을 주겠지만, 그녀는 누구를 고용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하고 있다.

그녀는 셋 중 진우가 가장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모두 그 사실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녀는 진우를 고용할까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상호가 최근에 갑자기 가난해졌다는 것과 그 때문에 심리적으로 가장 침울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사람이 상호가 셋 중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이 일을 통해 다른 둘보다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미는 이런 이유로 상호에게 그 일을 주고 싶어한다.

하지만, 경미는 조경학과를 나온 민주가 오랜 전업주부 생활로 권태와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다. 민주는 경제적인 문제도 없고, 자신을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미는 이 일을 민주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미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한다. 그녀는 각각 충분한 사유를 가진 세 가지 사연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진우	상호	민주
①	소득평등	공리주의	자기성취
②	공리주의	소득평등	자기성취
③	공리주의	자기성취	소득평등
④	자기성취	소득평등	공리주의
⑤	자기성취	공리주의	소득평등

문 17. 다음 글을 논리적인 순서대로 가장 적절히 배열한 것은?

(가) 일반적으로 기업이 임금 체계를 성과 지향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도의 틀과 운용 기준을 설계하여야 한다. 성과 지향적 임금 체계의 틀은 기업의 도입목적, 성과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철학, 적용대상의 지위, 임금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나) 기업에서 연봉제와 같은 성과 지향적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엄정한 운용 관리를 위해 대상층에 대해 업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유효하게 기능하도록 시스템화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 지향적 임금 체계를 통해 관리직과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의식개혁과 도전의식을 함양하고 이들의 능력 개발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다) 따라서 새로운 발상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성과 지향적 임금 체계의 틀을 구축할 때는 제도운영의 엔진이 되는 공정한 평가제도에 기초하여 보상이 인상 또는 삭감되는 틀을 설계하고 엄정하게 운용하는 것이 성과 지향적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지름길이 된다.

(라)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은 기존의 임금 수준은 보전하면서 근로량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임금 수준의 상승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근로 시간의 양에서 질로 옮겨야 한다.

(마) 단순한 종래의 연공형 임금 체계의 연장선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무늬만 생색내기식의 임금 체계 변동은 필요 이상의 재원만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무익하다 할 것이다.

(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아진 임금 수준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의 한 방안으로 임금 체계를 성과 지향형으로 바꾸는 것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된 사항이고 이는 많은 기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검증된 방법이다.

- ① (가) - (라) - (바) - (나) - (마) - (다)
- ② (라) - (바) - (가) - (다) - (마) - (나)
- ③ (라) - (바) - (가) - (마) - (다) - (나)
- ④ (바) - (가) - (라) - (마) - (다) - (나)
- ⑤ (바) - (라) - (가) - (마) - (나) - (다)

문 21. 다음 글을 논리적인 순서대로 가장 적절히 배열한 것은?

(가) 빈약한 정보 보호 투자도 문제이다. 정보화에 투자되는 정부 예산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 투자는 인색한 편이다. 정보통신부 자료를 보면, 지난 해 정보화에 쏟아 부은 예산은 5,789억원이지만 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예산은 306억원으로 5.3%에 불과했다. 이는 민간부문(6.2%)이나 미국(8.1%)보다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민간 기업들은 43%가 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을 두지 않고 유관 부서에서 병행하고 있으며, 44%는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내 기업들의 정보 보호 상황이 위험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 비율, 초고속 인터넷 접속 비율, 사용자 수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다. 인터넷 활용이 증대되면서 이제 사이버 공간은 제2의 생활 공간이 되고 있으며 인터넷은 없으면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전화선만큼, 어쩌면 전화선보다 더 중요한 국가 기간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다) 이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와도 일맥 상통한다. 사고가 나지 않을 때는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자동차 사고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자기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사고가 나면 그 피해 액수나 형사 책임이 너무 커서 개인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몰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안전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라) 그러나 정보 보안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낙관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93.9%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면서도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컴퓨터·인터넷 이용 시간이 늘면서 사이버 공격에 의한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이용자 중 42%는 바이러스 등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것도 이와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마)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예고된 사고’, ‘인재’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아직도 사람들이 ‘예방’을 위해 쓰는 돈과 노력을 ‘비용’이 아닌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안전 비용은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안전에 필요한 노력이나 비용은 처음에는 필요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큰 손실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안전에 드는 노력이나 비용은 각각의 회사 또는 더 나아가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바)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보안에 대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최소한 정부가 관리하는 컴퓨터들은 보안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적정한 수준으로 행해져서 다른 부문에 피해를 입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민간에 대해서도 보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권고함과 동시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정보 보호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그 동안 정보 보호 예산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예산에 묻혀왔으나 앞으로는 별도로 예산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곳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① (나) - (바) - (라) - (가) - (다) - (마)
- ② (나) - (라) - (마) - (다) - (가) - (바)
- ③ (나) - (라) - (가) - (마) - (다) - (바)
- ④ (마) - (다) - (나) - (라) - (가) - (바)
- ⑤ (마) - (다) - (바) - (나) - (라) - (가)

문 22. 다음 글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통된 주제로 적합한 것은?

가. 권력과 이익, 국가적 안보가 전쟁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므로 전쟁에는 정의와 같은 도덕적 판단이 적용될 수 없다. 즉 “전쟁에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전쟁은 언제나 도덕적, 법률적으로 양 당사자들에 의해 정당화되므로 전쟁이라는 폭력적 수단에 호소하는 것은 어떤 정당화도 필요가 없다.

나. 자연은 인간이 만든 거대한 사회나 국가 체제에서까지도 인간들 사이의 불화를 수단으로 하여, 그와 같은 불가피한 대립 속에서 평화와 안정의 상태를 찾아내도록 한다. 자연은 처음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불완전한 시도들을 감행하게 하고, 결국 무수한 황폐화와 몰락을 거쳐 그들의 모든 힘을 고갈시킨 다음에야 비로소 그렇게 많은 불행한 경험 없이도 이성이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즉 야만의 무법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들 사이의 연맹을 이루는 것으로 몰고 간다. 이러한 국제연맹에서는 모든 국가가, 비록 가장 작은 국가일지라도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 질서와 시민의 권리가 신성시되면서 수행된다면 전쟁조차 어떤 숭고한 면모를 가질 수 있다. 그리하여 어떤 민족이 이런 식으로 전쟁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민족이 위험에 처하여 담대히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면, 위험이 크면 클수록 전쟁은 그 민족의 사고 방식을 더욱 더 숭고하게 만든다. 이에 반해 오랜 평화는 한낱 상인기질만 퍼뜨리며 그와 함께 천박한 이기심과 비겁함, 그리고 유약함을 만연시켜 민족의 사고방식을 천박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라. 전쟁은 개인 전사를 둘러싼 가족과 동료, 왕에 대한 신의, 우정을 드러내는 하나의 장이다. 이를 통해 부족, 씨족, 민족이 맥락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한 남성이 얼마나 용감하고 지혜로운 인격이었는가를 기억하고 기념한다. 전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은 형편없이 싸울 수도 있고 아주 잘 싸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상태의 일부로 당연시되어야 한다.

- ① 전쟁의 정당성
- ② 전쟁의 자연성
- ③ 전쟁의 불필요성
- ④ 전쟁의 위험성
- ⑤ 전쟁의 역사성

문 23. 여동생이 1명씩 있는 A, B, C, D, E 5명의 청년이 있다. 이 5명의 청년과 각각의 여동생을 합한 10명 모두가 아래의 <전제조건> 하에 단체미팅을 하여 5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미팅결과> 로 볼 때, C의 여동생의 상대가 된 청년은 누구인가?

— <전제조건> —

1. 미팅에 참가한 청년은 자신의 여동생과 커플이 될 수 없다.
2. 두 사람이 서로의 여동생과 커플이 될 수 없다.
(예, 갑이 을의 여동생과 커플이 되었다면, 을은 갑의 여동생과 커플이 될 수 없다.)

— <미팅결과> —

1. A의 상대는 B의 여동생도 D의 여동생도 아니었다.
2. B의 상대는 C의 여동생도 D의 여동생도 아니었다.
3. C의 상대는 B의 여동생도 E의 여동생도 아니었다.
4. D의 상대는 E의 여동생이 아니었다.
5. E의 상대는 A의 여동생도 D의 여동생도 아니었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문 24. 다음 글의 흐름 상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은 곧 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용도로 환경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폐수를 강에 쏟아 붓는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분하기 위한 매체로 강이라는 환경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며, 시커먼 매연가스를 뿜어대는 기업은 그 매연가스를 처분하기 위한 매체로 대기의 일부를 이용하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환경오염이란 환경을 오염물질 배출이라는 특정 용도에 과도하게 이용한 결과 이 환경의 다른 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공해업체가 우리의 대기를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용도로 과도하게 이용한 결과 일반 시민들이 호흡하는 용도에 이 대기를 이용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주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해업체가 환경을 오염물질 배출 용도로 과도하게 쓰는 이유는 그 환경의 다른 용도에 미칠 지장에 상응하는 만큼의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학이 환경문제에 대하여 제시하는 대책이란 원칙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간단하다. 즉,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의 이용에 대하여 응분의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게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마치 쌀이나 옷에 가격을 매겨서 유통시키듯이 환경에도 적정가격을 붙여서 환경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 가격을 치르게 하는 것이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응분의 가격을 치르게 만든다면, 반대로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는 행위는 응분의 가격을 받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

- ① 이와 같이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이라는 것도 거래대상이 되는 자원처럼 취급되게 해야 한다.
- ② 즉 어떤 자원이든지 충분한 대가가 있어야 공급된다.
- ③ 말하자면 정부가 환경에 대한 시장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 ④ 요컨대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에 있다.
- ⑤ 다시 말해서 이미 자본화된 자연자원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문 25. 다음 (가), (나), (다)를 토대로 한 연구주제로 적절한 것은?

(가) 성(城)·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인대(人大)에서 선출되는 대표의 숫자는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되는데, 농촌 대표 1인당 인구수를 도시 대표 1인당 인구수의 8배로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물론 이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 농촌 성(省)·구(區)는 인구가 비교적 적어 만일 이 원칙에 따른다면 불과 몇 명의 정원밖에 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법에는 인구가 특별히 적은 성과 자치구의 대표는 최소한 15인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약 10만 8천명당 1명의 비율로 확정되어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선거방식이 자주 변해왔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면 다수대표제나 비례대표제나를 놓고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비교적 최근까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으나 현재는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현행 제도는 단기명 투표로 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결선 투표를 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차 투표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도 1차 투표시 투표수의 5%(1958년), 10%(1966년), 12.5%(1976년)로 바뀌어 왔다. 결국 현행 12.5%는 결선투표에서 최다 8명 이내로 후보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다) 형식적인 선거는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각 주의 선거인단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 시 득표율은 선거인단 선출시 각 주별로 후보가 득표한 비율에 비하여 약간 다를 수도 있다.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 시 만약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 선출은 하원으로, 부통령 선출은 상원으로 권한이 넘어간다. 하원에서는 각 주가 1표씩 선거권을 가지며, 총 3분의 2 이상의 투표에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하면 선출된다.

- ① 바람직한 의회 - 행정부간의 관계
- ② 바람직한 국회의원 선출방법
- ③ 중국정치경제의 발전방향
- ④ 국민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도
- ⑤ 대통령의 민주성 확보

문 2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하천은 자연공물로서, 자연환경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치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보다 풍부하고 윤택한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하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첫째, _____ 하천구역을 자연우선공간, 인공이용공간 및 공존공간 등으로 구분하고 자연우선공간에 대하여는 그 곳의 생물들이 충분히 서식할 수 있도록 생태계 피라미드를 토대로 일정규모의 공간을 확보하는 등 과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_____ 하천은 생물에게 있어서 산과 바다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서 산에서부터 바다까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서는 풍부하고 깨끗한 수량과 수질을 확보하면서 물고기의 소상 및 강하 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_____ 생물적 자연을 보전하고 재생함에 있어 생태계의 다양성, 생물종의 다양성, 유전자의 다양성 등 3가지 생물적 다양성을 유지·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물적 다양성이 높고 많은 생물종으로 구성된 생태계는 안정성이 높아 다소의 환경조건의 변화에도 저항력이 있으므로 생물적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생물사회의 유지·형성이 중요하다.

<보 기>

- (가) 생물적 다양성의 확보
- (나) 자연과 인간의 영역구분
- (다) 물과 녹음(綠陰)의 네트워크 형성

- ① (가) - (나) - (다)
- ② (나) - (가) - (다)
- ③ (나) - (다) - (가)
- ④ (다) - (가) - (나)
- ⑤ (다) - (나) - (가)

문 27. 다음 글의 내용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은?

예컨대, 내가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지킬 생각을 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가장 빠르고 또 가장 확실하게 찾으려면 먼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면 된다. 즉, "(거짓 약속을 통해 곤경을 벗어난다는) 나의 이러한 준칙이 보편 법칙으로서 (나와 다른 사람 모두에게) 마땅히 통용된다면, 과연 이 사실에 만족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다. 그러면 나는,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만일 다른 방법으로는 그로부터 빠져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누구나 거짓 약속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나는, 비록 내가 거짓말하는 것은 원할 수 있을지라도, 거짓말하는 것을 보편법칙으로 만드는 일은 결코 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법칙에 따르면 약속이란 것은 아예 성립할 수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말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래의 행위에 관한 나의 의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일 것이다. 또한 비록 그들이 경솔하게 나의 말을 믿게 될 경우라도 그들은 다시금 나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보복하게 될 것이다. 결국 나의 그러한 준칙은, 그것이 보편법칙으로 됨과 동시에 곧바로 파기되고 만다.

- ① 거짓 약속은 불가피할 경우 허용될 수 있다.
- ② 나의 준칙은 언제나 보편법칙이 될 수 없다.
- ③ 약속은 경우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 ④ 거짓 약속은 상대방이 믿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 ⑤ 거짓 약속을 보편법칙화 하려는 의도는 약속 개념 자체의 파기를 뜻한다.

문 34. 다음 실험결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범죄통제전략상의 시사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심리학자 짐바르도(Zimbardo)는 차량번호판이 없는 한 대의 자동차를 준비하였으며, 그 자동차의 본넷을 열어 놓은 채 A시의 어느 가로변에 주차시켜 놓았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종류의 멀쩡한 자동차를 마련하여 B시의 어느 가로변에 주차시켜 놓았다. A시에 세워둔 자동차는 ‘방치해’ 놓은 지 10분 이내에 곧바로 파괴자들(Vandals)에 의하여 공격을 받게 되었다. 자동차 주변에 처음 도착한 무리 중의 첫 번째는 한 가족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아들이었다. 그들은 차량의 라디오와 배터리를 제거하였다. 24시간 이내에 값어치가 나가는 모든 차량부품들은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다. 그리고 나서 자동차는 마구 파괴되기 시작했다. 자동차의 창문은 박살났으며, 다른 부품들도 파괴되었으며, 실내장식들도 찢어 없어졌다. 아이들은 마치 자동차가 운동장인 것처럼 그 위에 올라가서 뛰어 놀기 시작했다. 대다수의 성인 파괴자들은 말쑥하게 차려입은 아주 깔끔한 백인들이었다.

그런데 B시에 세워 둔 자동차는 1주일이 넘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다. 그 때 짐바르도는 큰 쇠파시로 자동차의 일부를 부숴 버렸다. 그러자 곧, 지나가는 행인들이 가담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안에 그 자동차는 완전히 뒤집어졌으며, 파괴되었다. 이번에도 첫 번째 실험에서 목격된 것처럼 상당히 품행이 방정한 백인이 파괴자로 나타났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파괴된 자동차는 일종의 약탈품이나 재미거리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그러한 짓을 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에게조차 정당한 게임거리로 전략하게 되었다.

- ① 지역 사회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들을 계속 방치하면 비공식적 통제능력이 약화된다.
- ② 지역 사회 내 어떤 질서 위반 행위의 발생은 추가적인 범죄 행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
- ③ 경찰은 마약, 강도, 살인 등 중범죄 통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 ④ 기초질서 유지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찰활동이 중요시 되고 있다.
- ⑤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호하고 적극적인 법집행활동을 정당화시킨다.

문 35. 다음 글의 흐름상 괄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A는 월소득이 100만원이다. 이 100만원으로는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다. 당연히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적자분은 정부 보조로 메우거나 적자 그 자체로 계속 쌓여간다. B는 월 200만원을 번다. 적자는 아니지만 소득과 지출이 같다. 저축은 엄두도 나지 않는다. 그나마 수입과 지출의 끝수 맞추기가 점차 힘들어진다. ○○ 은행 경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는 월평균소득 115만 - 135만원 계층에서 소득대비 적자폭이 5.8%에 이르렀는데 올 1/4분기 들어서는 월평균 소득 135만 - 155만원 계층까지 적자로 돌아섰다. C는 월소득이 1000만원이다. 생활비는 600만원이면 족하다. 나머지는 저축한다. 저축은 통상 금융기관을 경유해 기업투자로 이어진다.

국민소득은 국민 각자의 소득차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해서 다시 생산부문에 순환되고, 투자분은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다시 소득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순환과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C가 자신의 잉여소득 400만원을 저축하지 않고 외국계 투자펀드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직접 해외유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변에서는 재산의 국내·외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C는 요즘 들어 일부러 해외로 나가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전에 없던 주변 눈총 때문이다. 이 부분까지 합하면 해외 유출분은 더 늘어난다.

A, B, C를 합쳐 매달 1300만원의 돈이 우리 사회를 돌아야 그나마 재생산을 유지할 텐데 전체 지출액수가 줄어들면 각자에게 돌아오는 미래 소득 역시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은 국가 규모로 확대해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현금보유액만 40조 - 50조원에 달한다거나 아니면 수출 호조로 호황을 누린다는 이야기가 매스컴을 장식한지 오래다. 그럼에도 내수시장에서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

- ① 가계의 월평균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한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 ③ 돈 있는 사람들의 해외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 ④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를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 ⑤ 소득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 36. 다음 글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일화는 행성의 기묘한 운동에 대하여 상상해 본 것이다. 아인슈타인 이전 시대의 물리학자는 뉴턴 역학 및 그의 중력 법칙 N과 초기 조건 I를 수용하고, 그것들의 도움으로 새롭게 발견된 작은 행성 P의 진로를 계산했다. 그러나 이 행성은 계산된 진로에서 벗어났다. 뉴턴 물리학을 신봉하는 물리학자가 이것을 뉴턴 역학 법칙과 그의 중력 법칙 N에 대한 반박으로 생각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행성이 존재하며, 이 행성이 P의 궤도를 교란시켰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이다. 가정된 행성의 질량, 궤도 등을 계산하여 가설을 세우고 관측 천문학자들에게 그 가설의 테스트를 의뢰할 것이다.

행성이 너무 작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망원경 가운데 가장 큰 망원경을 통해서도 이 행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관측 천문학자들은 더 큰 망원경을 만들기 위해 연구비를 신청하였다. 3년 후에 새로운 망원경이 완성되었다. 만일 이 망원경을 통해 행성이 발견되었다면 이것은 뉴턴 과학의 새로운 승리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행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과학자는 뉴턴의 이론과 교란의 원인으로 여겨진 행성에 대한 그의 생각을 포기할 것인가?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우주진(宇宙塵)의 구름 때문에 우리가 그 행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이다. 그는 이 우주진의 위치와 성질을 추정하여 이 추정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인공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연구비를 요구할 것이다. 만일 인공 위성의 측정 기구들(가능한 한 새롭고 어느 정도 테스트된 이론에 기초한 기구들)이 추정된 우주진의 구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면, 이 결과는 뉴턴 과학의 놀라운 승리로 환호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구름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과학자는 뉴턴의 이론, 교란의 원인으로 여겨진 행성, 그 행성을 가리고 있는 우주진에 대한 생각을 포기할 것인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시 우주의 어디엔가 존재하는 자력장 때문에 인공 위성의 측정 장치들이 방해받는다라는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새로운 인공 위성을 발사한다. 만약 이 자력장이 발견된다면 뉴턴의 과학은 극적인 승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력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이 뉴턴 이론에 대한 반증으로 간주되는가? 그렇지 않다. 또 다른 기발한 보조 가설이 제안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모두 학술 잡지의 한 모퉁이에 사장되어 다시는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 ① 과학 이론은 영원한 진리이다.
- ② 과학자는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 ③ 이론을 지지하는 사례가 많으면 그 이론을 받아 들여야 한다.
- ④ 이론과 관찰 사실이 일치하지 않아도 그 이론은 살아남을 수 있다.
- ⑤ 뉴턴 역학은 어떤 관찰 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문 37. 다음 글에 담겨 있는 주장과 거리가 먼 것은?

사상 체계의 제일 덕목이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正義)는 사회 제도의 제일 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精緻)하고 간명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善)을 위해서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됨을 거부한다.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은 강요해도 좋다는 것은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은 평등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하에서 시민들에 의해서 채택된 것이라야 한다. 이 때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란 전통적 사회계약론이 가정하는 자연 상태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원초적 입장은 역사상에 실재했던 어떤 상태가 아니라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 원초적 상황이 갖는 본질적 특성은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이라 불리는 것인데, 말하자면 계약 당사자 중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떤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정의의 원칙들은 이런 무지의 장막 속에서 선택된다. 무지의 장막이 필요한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무지의 장막에 의해 아무도 타고난 운수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해 지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 때문에 비롯되는 불평등도 정의롭지 못하지만 자연적 우연성 때문에 귀결되는 불평등도 정의롭지 못하다. 따라서 천부적 재능을 한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 재능이 산출하는 이익을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 누구이든 간에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 이유만으로 이득을 볼 수 없으며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의 여건을 향상시켜준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들은 그들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 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는 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
- ②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다.
- ③ 모든 사회적, 자연적 불평등은 정의롭지 못하다.
- ④ 천재의 재능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 자산이다.
- ⑤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타고난 행운에 의한 이익도 정당화 된다.

문 38. 다음 글에서 필자의 주장과 다른 것은?

우리가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빨간 신호등이 켜져 당신이 차를 멈추었다고 하자. 그때 내가 왜 차를 멈추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신호등을 가리키면서, “빨간 불이 켜지면 저는 항상 차를 멈추죠.” 라고 대답할 것이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내가 “왜 수화기를 듭니까?”라고 물으면 당신은 “전화벨이 울렸기 때문이죠.”라고 대답할 것이며,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묻는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당신은 빨간 신호등이 켜졌을 때 항상 차를 멈추고 전화벨이 울렸을 때 항상 수화기를 들었는가? 아주 급한 일로 인해 의식적으로 빨간 신호등을 무시한 적은 없었는가? 비록 전화가 걸려왔지만 그 순간에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가 때때로 있지는 않았는가? 빨간 신호등이 차를 멈추게 하고 벨소리가 전화를 받게 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빨간 신호등과 전화소리가 차를 멈추게 하고 전화를 받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강한 욕구를 내면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을 때 차를 멈춘다. 또한

우리들 대부분은 사람들과 이야기 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화벨이 울릴 때 수화기를 들게 된다. 복잡한 거리에서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린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 결국 당신을 행동하게 하는 것은 외부의 작용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내면적인 작용에 의한 것임이 명백해질 것이다. 만일 우리들의 행동이 외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기계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 ①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잘 대우해 주길 몹시 바라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슬퍼하는 것은 나의 선택 때문이다.
- ② 인생의 실패는 무관심했던 부모, 나의 비열했던 배우자, 혹은 불만스러운 직업 때문이다.
- ③ 어떤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일지라도 그 행동은 자신의 내면적인 강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 ④ 인간의 행동은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만 설명될 수는 없다.
- ⑤ 인간이 생각하고 활동하고 느끼는 것은 내면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문 39. 다음 글에 이어질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11년, 영국 노팅검 지역에서는 네드 러드(Ned Lud)라는 사람이 주도한 비밀결사가 하나 조직되었다. 당시 노팅검은 영국의 대표적 섬유산업 도시였는데 방직기와 직조기계들이 도입되자 이전의 숙련공들은 모조리 실직의 위협에 처했다. 네드 러드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의 불행이 악마와 같은 기계 탓이라고 믿었고 밤마다 복면을 쓰고 공장의 기계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비밀결사는 대규모 실업과 함께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 기계파괴 운동은 네드 러드의 이름을 따서 ‘러다이트(Lud-diet)’로 불렸다. 이 운동은 당황한 영국 정부가 투입한 군대에 의해서 곧 유혈 진압되었지만 러다이트는 반(反)테크놀로지의 정신과 운동을 뜻하는 일반명사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이 사건을 역사의 뒀안길에서 만나게 되는 우발적 해프닝으로 간주하기 쉽지만 1980년대에 불어 닥친 컴퓨터 도입과 사무자동화의 흐름이 엄청난 수의 화이트칼라들을 직장에서 몰아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결코 과거형 사건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코 역사의 흐름을 뒤로 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러다이트 운동은 틀린 것이었지만 역사의 패러다임 전환이 결코 순조롭거나 모두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의 운동은 되새겨 볼 만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

평등과 민권을 향한 역사의 흐름은 프랑스에서 엄청난 유혈혁명을 요구했으며 고급 귀족문화의 깊이를 묻어 버렸다. 프랑스 혁명의 성공과 과오는 이후 모든 민주주의 혁명에서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었다. 자본주의와 기술문명의 확산도 결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과학기술과 자본주의의 만남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간의 편익을 눈에 띄게 증대시켰으나 과도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 인간소외와 빈부격차의 그늘을 드리웠다. 이처럼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다른 모든 거대한 전환의 흐름들은 빛과 그늘을, 긍정성과 부정성의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지구화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 ① 러다이트(Lud-diet) 운동의 교훈
- ② 반(反)테크놀로지의 정신과 운동
- ③ 지구화의 빛과 그늘
- ④ 프랑스 혁명의 성공과 과오
- ⑤ 과학기술과 자본주의의 만남

문 40. <보기>는 다음 책문(策問)에 대한 답안의 일부이다. (가) - (바)를 논리적 순서대로 적절하게 배열한 것은?

책문 :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라를 다스리는 요령은 당시의 시급한 일을 잘 파악하는 데 있을 뿐이다. 만약 상황에 맞는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못하면, 비록 날새기 전에 일어나 옷을 차려 입고 밤 늦게 저녁을 먹으며 부지런히 힘쓴다 해도 끝내 위태로움과 패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옛날 요순시대와 하·은·주 세 왕조에서 제대로 행한 일은 어떤 것이었는가? 또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면서 오랫동안 나라를 안정시켰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한나라나 당나라 이래 마땅히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결국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줄줄이 난리가 일어나 망했던 까닭은 무엇이었는가?

— <보 기> —

- (가) 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참으로 짝 막혀 식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바닷가 한 구석에서 올라온 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충성과 분개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금님을 바르게 보필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아,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 (나) 첫째, 책문에는 국가운영을 위한 큰 구상과 옛날의 이상적인 시대를 염원하는 성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정치를 해나갈 방도를 논해 풍속을 교화하고, 이 시대의 시급한 일을 가려서 나라를 경영하고자 하시니, 여기서 전하의 지극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다) 부디 전하께서 조금이나마 관용을 베푸셔서, 훌륭한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정직한 말 때문에 화를 입는 사람이 없게 하신다면, 참으로 나라의 복이 될 것입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대답하겠습니다.
- (라) 둘째, 책문에는 인재를 구해 폐단을 없앤다는 말과 세금제도를 바르게 정하고 부역을 고르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으니, 전하께서 온 마음과 힘을 기울여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인재를 가려 쓰는 까닭은 나랏일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 (마) 이렇게만 된다면 어찌 임금님께서 시의에 맞게 조치하지 못하는 폐단 때문에 근심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급하고, 절실하며, 근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이기지 못해, 죽기를 무릅쓰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삼가 대답합니다.
- (바) 공납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나 그 나머지 과제는 상황에 따라 가장 합당한 방법을 찾아 신축성있게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선한 제도가 편리할지 불편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하는 문제도 서로 마음을 합해 공경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으니, 전하를 위해 따로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 ① (가) - (나) - (라) - (다) - (바) - (마)
- ② (가) - (다) - (나) - (라) - (바) - (마)
- ③ (가) - (다) - (나) - (바) - (라) - (마)
- ④ (다) - (가) - (나) - (라) - (마) - (바)
- ⑤ (다) - (가) - (나) - (마) - (라) - (바)